

문학을 통해 예고된 법: 『살라미나의 병사들』과 ‘역사 기억법’*

임 호 준
서울대학교

임호준 (2012), 문학을 통해 예고된 법: 『살라미나의 병사들』과 ‘역사기억법’.

초 록 36동안 프랑스의 독재를 겪은 스페인은 민주화 이행기에 이르러 정치 지도자들 간의 협약을 통해 민주적인 국가로 평화롭게 이행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프랑코 시대에 자행된 잔학행위들에 면죄부를 준, 이른 바 ‘망각협정’이라고 불리는 1977년의 사면법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스페인에는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진 과거사 청산 움직임의 영향으로 기억의 시대가 도래 했다. 2007년 10월 31일 사회노동당의 발의로 의회에서 통과된 ‘역사기억법’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결과였다. 프랑코 정부에 가담했던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등의 급진적인 방안을 기대했던 스페인 사회 일각의 희망과 달리 이 법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조항 없이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독재 시대의 희생자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 법은 서론에서 민주화 이행기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적 화해와 화합을 존중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기 5년 전에 출판되어 큰 성공을 거둔 하비에르 세르카스의 소설 『살라미나의 병사들』은 이미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스페인 파시즘 이론가인 산체스 마사스의 생애에 관심을 갖던 서술자는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그를 구해 준 공화국 병사를 찾게 된다. 전쟁에서 만난 두 사람의 기구한 인연과 상이한 운명을 추적한 이 소설은 전쟁을 불러 온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대립이 모두 부질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이 비극적인 과거에 대한 스페인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설은 이미 5년 후의 ‘역사기억법’의 내용을 예고하고 있었던 셈이다.

핵심어 2007년 역사기억법, 1977년 사면법망각협정, 『살라미나의 병사들』, 하비에르 세르카스

* 이 논문은 2012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학술논문 게재지원을 받았음. 논문 제목은 심사과정에서 한 심사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임.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I. 서론

어떤 역사적 사건들은 당대에는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의 향방을 결정한 중요한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1977년 10월 15일, 프랑코 사망 직후 스페인의 정치적 격랑 속에서 통과된 사면법이 그런 것이다. 이 법안은 당시 일련의 정치 개혁 법안에 묻혀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야 지도자들 간 광범위한 협약인 ‘몽클로아 협약(Pacto de Moncloa)’에 가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면법은 훗날 ‘망각협정’으로 불리며 스페인 민주화의 기본 방향을 제공했다.

1990년대 이래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전지구적으로 벌어진 과거청산의 국면에서 탄생한 ‘스페인판 과거청산법’이라 할 수 있는 2007년의 ‘역사기억법’ 역시, 탈정치화의 시대와 맞물려 커다란 갈등 없이 넘어갔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구상에서 진행된 다양한 과거청산 방식의 하나로써 그리고 1977년 사면법의 짝으로서 중요하게 거론될 것이 분명하다.

1977년의 ‘망각협정’은 문제를 유예한 것이었지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그 유예의 정해진 기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스페인 사회에서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망각협정’의 취지가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서서히 과거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알다시피 1990년대 후반 이래로 스페인 사회는 이른바 기억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러 곳에서 집단 학살의 현장이 발굴되고 프랑코의 동상이 철거되는 등 과거

1) 왜 이 시기부터 과거사 청산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는 칠레,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에서 진행된 과거사 청산의 시도가 스페인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서 특히, 1998년 발타사르 가르손 판사가 스페인 사람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를 기소한 사건은 스페인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고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 움직임에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다(Davis Madelaine, 2005). 두 번째의 의견은 1990년대에 접어들어 그 동안 ‘망각협정’의 유지를 가능케 했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며 이제는 과거사를 거론하는 것이 사회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Gómez López-Quinones 2006, 15).

사 청산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이 진행되었다.¹⁾ 과거의 만행을 실증적으로 추적하고 고발하는 저작물도 줄을 이었다. 일반 대중 및 정치권으로부터 과거사 청산에 대한 제도적 조치가 요구되자 2006년 사회노동당 정부는 과거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골자로 하는 과거사 청산 법안을 만들었고 2007년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역사기억법’ 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세계사에 유래 없는 ‘망각협정’ 이 30년 만에 어떤 모습으로 철회되고 어떻게 해결의 물꼬를 트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세월이 지난 후 스페인의 ‘망각협정’ 과 30년 후의 ‘역사기억법’ 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짝으로서 논의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사회가 2000년대 초,중반 과거청산 작업의 논란 속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해외의 사례로서 스페인의 ‘망각협정’ 에 관심을 기울였듯이 ‘역사기억법’ 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우선 이 연구는 2007년에 공포된 ‘역사기억법’ 의 내용과 정신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2001년에 출판되어 공전의 성공을 거둔 하비에르 세르카스의 소설 『살라미나의 병사들』을 분석하여 이 소설의 이념적 관점과 기본 정신이 ‘역사기억법’ 과 일치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물론 역사기억법의 공포보다 5년 먼저 출판된 이 소설이 법안을 참조했을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을 입안할 때 정치가들은 국민의 지배적인 정서를 고려하기 마련이다. 그 법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설로서 대중적 성공을 거둔 『살라미나의 병사들』은, 25년이 지난 후 ‘망각협정’ 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기억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국민 정서의 표현이라고 볼 만하다.

더욱이 이 소설의 작가인 하비에르 세르카스(Javier Cercas)는 1962년 생으로서 내전은 물론 프랑코 체제의 극심한 탄압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다. 내전에 직접적으로 참전했던 세대는 그에게 할아버지뻘이 된다. 2007년의 상황에서 보자면, 적어도 반 이상의 스페인 국민이 이렇듯 내전과 프랑코 체제의 혹독한 억압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서²⁾ 작가는 이러한 세대의 한 명이

된다.

그렇다면 2007년의 역사기억법은 이러한 세대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역사기억법의 역사적 시각과 정치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그 후 이를 세르카스의 소설 『살라미나의 병사들』에 담긴 정치적·역사적 관점과 비교하며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2007년 ‘역사기억법’의 기본 정신

사회노동당 정부에 의해 기안된, 역사적인 ‘역사기억법’은 2007년 10월 31일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정식으로 공포되고 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앞서 2005년 초, 사회노동당 정부는 좌파 정당들의 협조를 얻기로 하고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법안 작성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6개월에 걸친 장고 끝에 2006년 7월 28일 이 법안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좌파 정당들을 파트너로 삼은 이유는, 우파인 국민당(Partido Popular)은 어차피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보고 법안 통과선인 하원 2/3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을 두고 급진적 노선의 좌파 정당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집권당으로서 사회노동당 정부는 지나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을 제외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고 끝에 2006년 확정되어 발표된 이 법안은 25개의 조항과 3개의 부가조항, 그리고 3개의 종결조항(finales)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당 정부는 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화해(reconciliación), 화합(concordia), 연대(solidaridad), 단결(cohesión) 등의 용어를 빈번히 사용함으로써 이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분열을 경계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법안이

2) 1976년 사망한 프랑코의 혹독한 억압을 경험했으려면 적어도 1960년 이전에 태어났어야 하는데 2007년의 상황에서 47세 이상의 인구가 인구의 50%를 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개되었을 때 좌·우파 언론 모두, 법안 작성에 소요된 시간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법안의 내용은 빈약하고 제목만 길다며 꼬집었다.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내전과 독재시기에 폭력과 박해를 당한 이들의 권리를 인정·증진하고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Ley por la que se reconocen y amplían derechos y se establecen medidas en favor de quienes padecieron persecución o violencia durante la guerra civil y la dictadura)’이었다. 좌·우파 언론 모두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제목만 보더라도, 이 법은 박해와 폭력을 당한 희생자들을 향하고 있지 가해자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다. 그 동안 급진적 좌파 세력은 희생자가 프랑코파의 반란과 탄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법은 내전에서 싸운 양측의 피해자와 독재시대의 피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모두가 역사의 피해자’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 가해자의 존재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결국 ‘역사기억법’은 가해자의 탄압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기억하자는 것이 기본정신임을 알 수 있다.

사실, 1977년 ‘망각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이것이 ‘사면법(Ley de la amnistía)’으로 명명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유럽 어디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였다(Gálvez Biesca 2006, 26). 그런데 30년 후의 ‘역사 기억법’ 역시 피해자에 대한 복권과 보상을 마련하고 있을 뿐 가해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실제로 ‘역사 기억법’은 제목과 그 취지에서 “화해와 화합의 정신”으로 평화적인 민주화를 이룩한 “전환기의 정신”을 모델로 삼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법의 한 부분인 ‘취지 설명(Exposición de motivos)’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환기를 이끌었던 화해와 화합, 지역주의에 대한 존중, 모든 이념들에 대한 평화로운 옹호의 정신은 통합에 대한 확고한 소명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이고 법치민주적인 국가의 초석이 되는 한편, 스페인 국민들 사이의 소통의 의지를 법적으로 표현한 1978년 헌법을 우리에게 부여했다.

전환기의 정신은 우리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비옥한 공존의 헌정(憲政)모델을 가능하게 했고, 내전과 이에 따른 독재정권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기 전 수십 년 동안 고통 받았던 사람들을 위해, 민주주의가 발명된 이래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마련되어온 다양한 방식들과 권리들을 설명한다. (Exposición de motivos)

사실 전환기의 정신을 이어받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언이다. 스페인 사회 일부에서는 독재 정권에 대한 청산과정 없이 집단적 망각을 도모한 민주화 전환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환기의 정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말은 결국 그렇게 과거를 봉합한 것이 당시로서는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역사적 판단을 담고 있는 셈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30년 후에도 여전히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 없는 청산의 모델을 따라가고자 하고 있다.

2007년의 ‘역사 기억법’에 진상조사의 의지가 없다는 것은 법안의 어디에도 ‘진실 위원회’와 같은 진상조사 기관의 설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집단 매장된 구덩이의 발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기로 한 부분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 유해 발굴 작업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부문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했는데 다만, 정부는 시민단체의 작업을 지원해야 하며(12조 1항), 개인적으로 친인척의 시신을 찾거나 하는 사람이 있을 시 지역의 관할관청이 이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한다고 부가했다(11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관할관청이 발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 매장지 발굴은 진상조사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데도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진실규명의 의지가 거의 없다는 것과 같다. 2011년 UN의 비호 하에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강제 및 타의에 의한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이 스페인의 ‘역사 기억법’을 비판하면서 스페인에서 70년 전 실종자들을 발굴하는 일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³⁾

2006년 법안을 처음 설명하는 자리에서 페르난데스 데 라 베가(María Teresa Fernández de la Vega) 부총리는 이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희생자 가족들 사이의 감정적 대립을 피하기 위해 내전과 프랑코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부가 역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역사는 역사가들이 쓰는 것이다”라고 밝힌 것 역시 정치적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⁴⁾

결국, 사회적으로 과거사 청산에 대한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사회노동당 정부가 등 떠밀리듯 법안 제정에 나선 느낌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노동당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데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듯 보인다. 이것이 바로 전환기에 ‘망각협정’을 가져 온 정치적 태도인데 정치권은 여전히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과거사 청산 과정이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희생자 위로와 보상 등 세 가지 영역 모두에 주안점이 주어졌던 반면, 스페인의 과거사 법안은 대체로 절충적 성격이 강하고 희생자 보상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그 외에 기념조형물 철거, ‘전몰자의 계곡’에서의 정치집회 금지 따위의 조항은 모두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결국 역사기억법은 철저하게 화합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살라미나의 병사들』과 ‘역사기억법’의 탈 이념성

『살라미나의 병사들』의 시작지점은 2007년 발효된 역사기억법과 마찬가지로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작가 하비에르 세르카스 본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연령상으로 볼 때 그는 내전을 겪지 않은 스페인 젊은 세대의 대표자로 여겨질 만하다. 소설을 한 편 썼지만 그다지

3) <http://www.20minutos.es/noticia/1144430/0/onu/fosas-comunes/guerra-civil/>

4) “Un consejo elegido por el Congreso rehabilitará a las víctimas de la Guerra Civil y el franquismo”, El País, 2006.7.28.

성공적이지 못했고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2000년대의 여느 젊은 세대와 마찬가지로 애초 내전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그가 내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편집자로부터 유명작가 산체스 페를로시오를 인터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그의 부친인 산체스 마사스가 내전 때 공화파의 포로로 잡혔었고 종전 직전 총살대에서 극적으로 생환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집단총살의 아비규환 속에서 숲으로 도주한 마사스는 추적에 나선 공화파 병사에게 발각되는데 숨어있던 마사스를 발견한 병사는 그를 못 본 척 함으로써 그는 기적적으로 생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살라미나의 병사들』의 출발점이 되며 이 작품 전체의 기본구도를 마련해 준, 1939년 전장(戰場)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는 작품의 의미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전에서 벌어진 잔학행위는 주로 프랑코파에 의해 자행된 것들이 언급되었음에도 이 에피소드는 공화파에 의해 자행된, 보복성 집단 총살을 보여주고 있고 그 후에는 국민파 거물 포로를 공화파 병사가 살려주는, 인도주의적인 대목이 등장함으로써 마치 공화파와 국민파 사이의 상징적인 화해를 말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살라미나의 병사들』의 서술자는 이러한 극적 스토리를 통해 내전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상황에 관련된 인물들을 찾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드는 데 그 이유는 이 사건이 매우 극적이기 때문이지 결코 내전에 대한 근원적 관심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내전은 원래 이들에게 별 관심사가 아니었고 인물을 추적하다 보니 맞닥뜨리게 된 사건에 불과하다. 서술자는 이에 대해 매우 솔직한 진술을 들려준다.

콜렐에서 일어난 산체스 마사스에 대한 총살 집행과 그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페를로시오와의 인터뷰 이후 나는 산체스 마사스 그리고 내전에 관해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나는 내전에 관해서 살라미나 전투나 끝마무리용 대패의 사용법보다 더 상세하게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내전이 불러온 끔찍한 사건들에 관해서도 궁금증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나에게 있어 그것은 노인들에겐 향수에 쫓

어들 구실이었고, 상상력이 없는 작가들에겐 상상력의 기화기처럼 보였
었다.(Cercas 2001, 21)⁵⁾

내전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내전을 경험하지 않은, 마흔 살의 스페인 사람
이 갖는 일반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스페인 내전은, 기원전 5세
기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서 벌어졌던 살라미나 전투처럼 그냥 아득한
옛날이야기거나 대패 사용법 보다 별로 더 아는 것이 없는 생소한 사건인 것
이다. 스페인 전환기의 ‘망각협정’으로 인해 이후의 세대는 내전에 대해 제
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고 민주화 이래로 진행된 스페인 사회의 탈이념화로
인해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내전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우연한 사건을 통해 내전의 사건을 추적
하게 되는 작품의 서술자는 당연하게도 내전을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서술자는 내전의 승자와 패자에 아무런 감정적 동화가 없다. 이러한
탈정치성은, 앞에서 살펴보았듯 역사기억법의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살라미나의 병사들』의 서술자는 1999년 내전 종전 60주년을 맞아 안토니
오 마차도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글을 쓰라는 편집부의 요청에 따라 그의 비
극적 최후를 다룬 「본질적인 비밀 Un secreto esencial」라는 글을 쓴다. 그는
이 글에서 공화국의 희생자를 대표하는 신화적 인물 안토니오 마차도의 죽
음에 대해 쓰면서 동시에 그와 비슷한 시기 총살형의 운명에 처했던 국민파
의 거물 산체스 마사스의 기적적 생환에 대해 쓴다. 이것 또한 탈이념적인 배
려라 할 수 있는데 양쪽의 거물이 내전에서 겪은 피해를 나란히 병치시킴으

-
- 5) 본문에 인용된 한글 번역은 『살라미나의 병사들』(김창민 역, 열린책들)의 번역을
참조하여 필자가 수정한 것이다. 페이지는 2001년 Tusquets에서 출판한 스페인어
판을 따른 것이다.
- 6) 두 사람 모두 당시에는 거물이라고 하지만 현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시인 안토니
오 마차도는 98세대의 핵심멤버로서 스페인의 민족시인으로 추앙받고 있음에 비해
파시즘 이론가 산체스 마사스는 거의 잊혀진 인물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굳이
두 사람을 병치시킨 것은 표면적으로나마 양쪽의 균형을 맞추려는 다분히 의도적
인 고려라 할 수 있다.

로써 정치적 편향성을 벗어나기 때문이다.⁶⁾

결정적으로 서술자는, 이런 인물들이 한쪽 편에 서며 내전에 가담한 정치적 동기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시각을 보인다. 왜냐하면 마차도 형제가 각자 다른 편에 가담한 정황에 대해 정치적 신념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동생인 안토니오는 공화국에, 형인 마누엘은 국민파에 동조한 이유에 대해 서술자는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대담한 발언을 들려준다.

7월 18일 반란이 일어났을 때 마누엘은 반란군 지역인 부르고스에 있었던 반면 안토니오는 마드리드에 있었다. 만약 마누엘이 마드리드에 있었다라면 공화국 편에 섰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 아마도 안토니오가 부르고스에 있게 되었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상상은 부질없는 짓이다.(25)

“상상은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모호한 표현을 쓰지만 서술자는, 내전이 발발했을 때 반란파가 장악했던 부르고스에 안토니오 마차도가 있었다라면 상황논리에 의해 그가 반란파에 가담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것은 실로 대담한 발언으로서, 시인 안토니오 마차도는, 가르시아 로르카(García Lorca), 미겔 에르난데스(Miguel Hernández)와 더불어 내전 때 희생된 공화국의 순교자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문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신화적 인물의 정치적 동기를 의심한다는 것은 공화파 신봉자들에게겐 여간 충격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독자로부터 수정주의자라는 항의 편지를 받는다. 이것은 공화국 지지자의 시각에서 보자면 2007년의 ‘역사 기억법’이 프랑코파를 유일한 가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양쪽을 모두 피해자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수정주의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두 형제가 양쪽에 가담해서 엇갈린 운명을 맞았지만, 그것은 상황이 빚어낸 해프닝으로서 두 사람 모두 역사의 피해자라는 식의 역사관은 앞서 살펴보았던 ‘역사 기억법’의 기본적 시각이다.

내전에 가담한 사람들의 정치적 동기에 대해 회의적인 『살라미나』의 서술

자는 스페인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파시스트 작가를 복권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산체스 마사스에 대해 책을 쓰려는 자신의 입장 역시 같은 맥락 속에 있기 때문이다.

좌파 교리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몇몇 순진한 사람들이나 몇몇 멍청한 사람들은 팔랑헤 작가를 발굴하는 것-또는 발굴하기 위한 발판을 준비하는 것-은 팔랑히스모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진실은 정반대다. 즉, 팔랑헤 작가를 발굴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작가를 발굴하는 것이다.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훌륭한 작가를 발굴함으로써 자신 스스로가 작가로서 발굴되는 것이다.(22)

내전을 일으켰지만 내전에서 피해를 당한 반란파도 희생자로 포함시키는 ‘역사 기억법’ 역시 반란파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비슷한 설명을 할 것이다. 즉, 그들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라미나』의 서술자가 자신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내전을 보고 있다고 여기지만 독자로부터 ‘수정주의자’라는 비난을 들었듯 비평가들로부터 같은 평가를 받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⁷⁾

그러나 ‘수정주의’라는 비판과 상관없이 2007년의 ‘역사 기억법’이 프랑코파를 지지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 역시 내전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내전 직전과 내전 당시에 공화파에 의해서도 많은 잔학행위가 자행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사실, 산체스 마사스가 극적으로 탈출했던 집단총살 역시 마찬가지로 공화파의 패배로 전쟁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에서 포로들을 처형한 것은 결코 인도주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라미나』의 서술자는 보다 결정적인 증언을 남긴다. 그는 자신

7) 『살라미나의 병사들』은 여러 비평가들로부터 반란파의 시각에서 내전을 보고 있다는 평을 들었다. 그러나 네샤퍼는 이 작품에서 서술자와 작가의 입장을 구분하며 서술자는 반란파의 입장에 서 있지만 작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Neuschäfer, 2006: 151).

이 쓴 기사를 읽고 연락해 온 향토 사학자 아기레의 입을 빌려 상당히 비판적인 눈으로 내전 초기 공화파가 저지른 교회 방화와 성직자에 대한 집단 학살을 들려준다.

“이제 유행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반교회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그것(교회에 대한 집단 방화와 신부들을 학살하는 것)은 집단적 광기였어요.” 그는 설명했다. “물론 그런 행동을 설명하는 이유를 대는 것은 쉽지요. 하지만 나치즘을 설명하는 이유를 대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몇몇 자치주의 사학자들은 교회에 불을 지르고 신부들을 죽인 사람들이 타지역 사람들이거나 이민자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3년이 지난 후 겨우 한명의 신부만이 살아남아서 국민파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물어본다면 아마 교회에 불을 지른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지요. 저를 가장 불쾌하게 하는 건 아직도 그 전쟁이 카스티야 사람과 카탈루냐 사람 사이의 전쟁이었다며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만 나오는 영화처럼 말하고 다니는 자치주의자들이에요.”(30)

비록 서술자가 직접 주장한 말은 아니지만 이 인용문은 ‘역사 기억법’이 프랑코파로 내전에서 싸운 사람들까지도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결정적인 설명이 된다. 그리고 내전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만 나오는 영화처럼’ 말하는 것이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 ‘역사 기억법’의 기본 정신이다.

서술자의 탈이념성은 국민과 전범 산체스 마사스에 인간적으로 동화되는 선까지 나아간다. 그가 이데올로기적 믿음에 의해 전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젊은이들을 선동함으로써 전장으로 내몰았지만 죽음의 위기를 극적으로 넘기며 “변호하고 설교하던 그 모든 것들을 믿지 않게 되었다”(138)고 말한다. 결국 그는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고 나중엔 평범한 부르주아로서 삶을 마쳤다는 것이다.

서술자의 태도는 비록 산체스 마사스가 잘못된 정치 이데올로기에 젖어 전쟁의 발발에 일조했으나 이것은 한때의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후엔 정치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고 함으로써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며 독자로부터 전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유도하는 듯하다. 이것은 물론 화해와 화합을 강조하는 2007년 역사기억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IV. 『살라미나의 병사들』과 피해자 보상 중심의 과거청산

표면적으로 보자면 『살라미나』의 서술자는 1, 2, 3부를 통해 정치적 입장 변화를 보이는 듯하다. 서술자는,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공화파 병사 안토니오 미라예스를 만나고부터는 그의 입장에 동화된다. 평생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이국땅의 요양원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노병 미라예스의 존재는 이제까지 내전을 승자의 입장에서 보던 서술자의 시각을 변화시킨다. 미라예스를 대면했을 때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모든 국가의 역사 중에서 가장 슬픈 역사는 스페인의 역사다. 왜냐하면 불행하게 끝을 맺기 때문이다.’ 미라예스가 말하는 동안 나는 생각했다. ‘불행하게 끝나다니?’ 나는 생각했다. ‘똥이나 처먹을 전환기!’ 라고 뇌 까렸다.(175)

서술자의 이러한 고백은 역사 의식면에서 그의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1977년의 ‘망각협정’이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환기의 정신을 이어 받았다고 천명한 2007년 역사 기억법의 정신과 줄곧 유사한 역사인식을 보여주던 서술자가 전환기를 욕하게 된 것은 완전히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전환기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이 전환기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2007년 역사기억법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 기억법이 계승하고자 하는 것은 전환기의 화합의 정신이고 역사 기억법 역시 ‘망각협정’이 시한이 끝났음은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서 서술자가 ‘똥이나 처먹을 전환기!(Y una gran mierda para la Transición)’라고 했을 때의 의

미는 미라에스 같은 희생자가 망각된 점이 정의롭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가해자를 철저히 응징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 기억법의 기본 인식과 마찬가지로 서술자 역시, ‘망각협정’의 문제점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응징하지 못했다는 정의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희생자들이 그냥 잊히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즉, 서술자는 미라에스의 정치적 시각에 동화된 것이 아니다. 서술자가 보기에 미라에스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다. 그 역시 무고한 전쟁의 피해자일 뿐이다. 당황스럽게도, 미라에스는 이데올로기에 상관없이 우연에 의해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나는 프랑스 국기와 함께, 무르주크의 오아시스를 향해 끝없이 펼쳐진 리비아의 불타는 사막을 걷고 있는 미라에스를 보았다. 미라에스가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포기한 운명과 문명의 운명이, 계속 앞을 향해 가고 있는 미라에스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르는 채 프랑스의 광장에서 그리고 유럽의 광장에서 자신들의 사업에 열중해 있을 것이다. 그때 나는 산체스 마사스와 호세 안토니오를 떠 올렸다. 아마도 그들은 틀리지 않았다. 최후의 순간엔 문명을 구한 병사들이 있었다는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호세 안토니오도 산체스 마사스도 그들 또는 그들과 같은 병사들이 절대로 이 마지막 병사대열에 깰 수 없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문명을 구한 병사들은 우연히 또는 재수 없이 거기에 있었던 네 명의 무어인과 한 흑인과 한 카탈루냐 선반공으로서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이 이 어두운 시기를 구원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웃겨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에 대한 보상이 이국땅의 쓸쓸한 요양원인줄도 모르는 채로 문명과 우리를 구했던 것이다.(195-196)

서술자에 따르면 미라에스는 확고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스페인 내전과 2차 대전에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를 전쟁에 계속 참전하도록 만든 것이다. 따라서 그는 확고한 지조아래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또는 운이 나빠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 뿐이다. 이것은 앞서 마누엘 마차도가 내전 발발 당시 부르고스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파에 가담한 것이고 안토니오 마차도 역시 부르고스에 있었더라면 국민파에 가담했을 수도 있다는,

서술자의 조심스런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

그렇다면 여전히 서술자는 내전 참가자들의 정치적 동기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셈이다. 어느 쪽에 가담했든, 그들이 “어두운 시기를 구원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웃겨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허무주의가 여전히 서술자의 시각이다. 우파든 좌파든 상황논리에 의해 전쟁에 뛰어들게 된 것일 뿐 어느 쪽도 절대적인 정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제2공화국을 신화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 지식인들의 분노를 살 수도 있는 대목으로서, 앞서 서술자의 신문기사가 ‘수정주의’라고 비판을 받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서술자가 미라예스와 전쟁에서 죽어간 공화파 병사들의 처지를 보고 분개하는 것은 그가 프랑코파의 참전자들과 달리 아무도 기억하는 이 없이 잊혀졌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산체스 마사스는 전쟁 후 충분히 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굳이 ‘역사 기억법’에 의해 보상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비록 이 망할 놈의 나라의 어떤 도시의 어떤 장소에도 미라예스의 이름을 단 길이 없지만 나는 그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는 어떻게든 살아있을 것이다. 또한 나는 가르시아 세게스 형제 -조안과 펠라- 미겔 카르도스와 가비 발드리치 그리고 피포 카날 그리고 뽕뽕보 오테나 그리고 산티 브루가다 그리고 조르디 구다을을 말할 것이다. 이들은 많은 세월을 죽어 있었지만 그들은 살아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피게라스와 앙헬라츠와 마리와 페레,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볼라뇨의 라틴아메리카 젊은이들까지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산체스 마사스와 마지막 순간 문명을 구한 총살대의 병사들을 기억할 것인데 군인으로서 산체스 마사스는 아니고 미라예스는 해당된다.(208-209)

서술자가 미라예스 그리고 공화파 병사들을 ‘애도’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피해자이고 승자측 군인들과 달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반란파에 맞서 적법한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정치적 동기에 대해선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없고 이들이 사형, 투옥, 고문, 추방 등 갖은 고생을 당한 억울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그저 잊혀진 패배자들에 대한

새로운 발견만이 있을 뿐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아나 루엔고는 서술자의 깨달음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피상적”이라고 잘라 말한다(Luengo 2004, 254). 이러한 비판은 프랑코파에 대한 정치적 단죄의 의미가 없는 역사 기억법에 대한 급진적 좌파의 불만과도 일치한다.

미라예스는 내전에서 함께 싸우다 전사한 전우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전장에서 죽어간 이들이야말로 영웅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영웅은 전장에서 태어나 전장에서 죽는다고. 살아남은 영웅은 없다 오, 젊은이. 모두가 죽었으니까”(199)라고 미라예스는 말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무명 용사들을 발굴하고 연금이나 배상액 등을 통해 보상하는 것이 2007년 ‘역사 기억법’의 골자이다.

이렇게 서술자는 안토니오 미라예스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영웅은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전쟁터에서 죽어간 병사들임을 깨닫게 된다. 전쟁터에서 도주하는 적군을 살려 준 병사의 에피소드로 시작된 『살라미나』는 결국 이렇게 무명용사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살라미나』의 의도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억되지 못하고 죽어간 ‘영웅들’을 찾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2007년의 ‘역사 기억법’이 입법된 취지였으며 그들을 복권시키고 보상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었던 것이었다.

V. 결 론

2007년 사회노동당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어진 역사 기억법은 ‘역사 기억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기억’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하지만 어떻게 1977년의 상황에서 ‘망각협정’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후로도 집단적인 ‘망각’의 합의가 유지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우파가 주도한 ‘망각협정’ 이후 30년이 지나 좌파의 주도로 제정된 ‘역사 기억법’은, 비록 좌·우파 언론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피해자 보상만을 다룸으로써 국민적 화합이 최선이라는 전환기의 정신을 계승

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에 출판되어 상업적, 비평적으로 성공을 거둔 『살라미나의 병사들』 역시 이러한 법안의 정신을 반영하듯 내전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복권을 촉구하고 있다. 전환기 ‘망각 협정’의 역사인식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보상하는 주장이 있을 뿐, 내전 참전자들의 정치적 대의에 대해선 양쪽 모두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있다.

물론, 『살라미나의 병사들』의 정치적 입장은 이제까지 스페인 내전을 다룬 많은 소설과 영화와 구별된다. 이 작품들은 대부분 제2공화국을 선으로, 프랑코파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업예술이 차용하는 이분법과 신화화라고 볼 수 있다. 타센데는 최근 스페인의 작가들에게서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방향상실과 혼동 그리고 소외”가 발견되는데 이것이 “이상화된 과거를 불러오는 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제2공화국의 신화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거(제2공화국)는 투쟁과 죽음-필요하다면-을 불사할 수 있는 숭고한 이상을 제공했고, 더 공정하고 나은 세상의 가능성과 유토피아를 믿고서 좌파에 투신했던 1960년대의 반프랑코 젊은이들에게, 불행하게도 환멸로 끝난 더 나은 미래와 자유의 약속을 함축하고 있었다.(Tasende 2001, 216)

이러한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라미나의 병사들』은 수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셈인데 그럼에도 이 작품이 영화화되는 등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스페인 국민들이 이 작품의 정치적 판단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좌파정당이 가해자 처벌 없는 역사기억법을 제정한 것은, 대부분의 스페인 국민들이 현실의 영역에선 이분법에 경도되어 있지 않으며 절대로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 면에서,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지 않은 병사가 영웅화되는 『살라미나의 병사들』의 서사가 대중적으로 호응

- Aguliar Fernández, Paloma(1996), *Memoria y olvido de la guerra civil española*, Madrid: Alianza.
- Gálvez Biesca, Sergio(2006). “El proceso de la recuperación de la ‘memoria histórica’ en España: Una aproximación a los movimientos sociales por la memoria,” *International Journal of Iberian Studies*, Vol. 19, No. 1, pp. 25-51.
- Gómez López-Quiñonez, Antonio(2006), *La guerra persistente: Memoria, violencia y utopía: representaciones contemporáneas de la Guerra Civil española*, Vervuert: Frankfurt.
- Luengo, Ana(2005), *La encrucijada de la memoria: La memoria colectiva de la Guerra Civil Española en la novela contemporánea*, Berlín: Verlag Walter Frey.
- Madelaine, Davis(2005), “Is Spain recovering its memory?: breaking the Pacto del Olvido,” *Human Rights Quarterly*, 27(3), pp. 858-880.
- Neuschäfer, Hans-Jörg(2006), “La memoria del pasado como problema epistemológico: Adiós al mito de las <Dos Españas>,” Winter, Ulrich (ed). *Lugares de memoria de la Guerra Civil y el franquismo. Representaciones literarias y visuales*, pp. 145-153.
- Tasende, M.(2001), “El proceso de mitificación en El lápiz del carpintero de Manuel Rivas,” *Monographic Review/Revista Monográfica*, 17, pp. 206-220.

임 호 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hojoon33@snu.ac.kr

논문투고일: 2012년 2월 15일

심사완료일: 2012년 4월 9일

게재확정일: 2012년 4월 16일

Key words Historical Memory Law of 2007, Amnesty Law of 1977, Pact of Forgetting
Soldiers of Salamis, Javier Cercas